

플라스틱협회, 국제회의에 대표단 파견

플라스틱협회가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는 11월11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극동 플라스틱산업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11월9일 발표했다.

36회째를 맞는 플라스틱 국제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해 인디아, 타이 등 아시아 플라스틱산업을 대표하는 10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재활용 정책과 탄소저감 사례, 신기술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시아 플라스틱산업을 견인하자는 취지로 매년 열리는 극동 플라스틱산업 국제회의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3개국 대표 단체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1/09>